

가족특성에 따른 새터민의 사회문화적 적응*
The Family Characteristics Affecting
the Socio-Cultural Adjust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진미정
교수 이순형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Meejung Chin
Professor : SoonHyung Yi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As the number of North Koreans defectors entering South Korea with their family members increases, it becomes more important to explore the family characteristics that facilitate their adjustment. The data used in the present study was collected from a survey of 195 North Korean defector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the structural and relational aspects of family influence the socio-cultural adjust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family life included whether or not the defectors exited with their family members, whether they were living with family members, and whether they were living with family members under the age of 18. The relational characteristics included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living with young family members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social activity restriction problems commonly perceived by North Korean defectors. Family cohesion was also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social activity restriction problems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social isolation problems. The results of this study also showed that family adaptability wa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ny socio-cultural adjustment problems.

주제어(Key Words): 가족동반탈북(Exit with family members), 가족동거(Living arrangement), 응집성(Cohesion), 적응성(Adaptability), 사회문화적 적응(Socio-cultural adjustment)

I. 문제제기

남한으로 들어오는 탈북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주목되는 현상 중 한 가지는 가족이 동반 입국하거나 연계 입국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2005년에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 1383명 중 380명(27.5%)이 가족과 함께 입국하였고, 2006년 6월 현재에는 총 854명의 입국자 중 267명(31.3%)이 단독으로 오지 않고 가족 중 일부와 혹은 전부와 함께 입국하였다(통일부 국감자료, 2006). 이렇게 새터민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데에는 중국 등 체류국가의 단속강화, 북한지역의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유입 증가, 북한지역의 이동 용이성 증가, 그리고 먼저 입국한 탈북자의 잔여가족 입국 지원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윤여상, 2002).

가족 단위의 탈북이 늘어나면서 가족이 새터민의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선행연구들은 단독으로 입국한 새터민보다 가족이 일부라도 함께 온 새터민들의 적응이 더 빠르고 유연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이기춘, 이기영, 이은영, 이순형, 김대년, 박영숙, 최연실, 2000; 전우택, 2000; 한인영, 이소래, 2002). 가족이 새터민 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 선행연구들은 가족이 정서적 지지와 위로를 통해 고립감, 외로움 등의 정서적 문제를 해소시켜줄 수 있다는 점, 가족이 함께 입국한 경우에는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나 그리움의 여지가 줄어든다는 점을 가족의 효과로 보고 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입국한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부모나 가족 없이 입국한 경우에 비추어 볼 때 더 적절하게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안정감은 새터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적응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적응 과정에서 가족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탈북가족에 대한 몇몇 선행연구들은 가족이 함께 새로운 사회에서 적응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점들을 동시에 지적한다(김영수, 2000; 박미석, 이종남, 1999; 이기영, 2000; 이기영, 성향숙, 2001; 장혜경, 김영란, 2000; 조영아, 전우택, 2005; 전우택, 2000). 이러한 연구는 주로 난민이나 이민자 가족에 대한 미국 내 연구결과들을 고찰하면서, 새터민가족들도 가족 단위의 적응이 가져오는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적응의 개인차, 역할전환에 따른 가족 내 권력구조의 변화, 성역할 규범의 변화 및 가족문화의 변화 등 다양한 갈등의 싹과 문제의 가능성이 새터민가족 내에 잠재되어 있으며 이것이 개인과 가족의 적응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새터민가족이 관심의 대상이 되

고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에 실증적으로 접근하여 검토한 연구는 별로 없다. 몇몇 연구가 소수의 가족을 면접 조사한 질적 자료나 소규모의 설문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새터민가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을 뿐이며(예를 들어 박미석, 이종남, 1999; 안연진, 2002; 이기영, 성향숙, 2001; 장혜경, 김영란, 2000; 조영아, 전우택, 2005), 다른 연구들은 실증적 자료의 뒷받침 없이 통념적으로 가족이 새터민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가족이 새터민 적응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나아가 가족의 어떤 특성이 새터민 적응과 관련되는 지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이 새터민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미친다면 가족의 어떤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새터민의 적응 중에서도 사회문화적 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의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문화적 적응은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유지, 언어 및 일상문화의 습득, 새로운 법제도의 해석과 수용 등을 의미하며,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일차적 과제가 된다. 새터민 적응의 궁극적인 목표가 새로운 사회로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사회문화적 적응은 경제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의 기반을 형성하고 이러한 적응을 용이하게 만드는 기초가 된다.

본 연구는 가족의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가족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였다. 먼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가족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가족 동반 탈북 여부, 현재 가족과의 동거 여부, 미성년가족원 유무 등 가족의 구조적 측면의 변수들을 고려하였다. 또한 가족의 관계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과 같이 가족과정을 보여주는 특성을 고려하였다.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새터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분석적으로 밝혀낼 수 있으며 새터민 가족의 적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또한 가족 단위의 탈북과 입국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가족 단위의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나 프로그램 개발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새터민의 입국 현황과 적응 문제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위기 이후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에 입국한 새터민의 숫자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6년 6월 현재 총 8,242명의 새터민이 남한에 거주하고 있다(통일

〈표 1〉 최근 5년 동안의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단위 입국 현황

구분	총 입국자 수	가족		단독 입국자 수
		가족동반입국수	세대원 수	
02년	1,139	160	409	730
03년	1,281	190	464	817
04년	1,894	274	668	1,226
05년	1,383	168	380	1,003
06.6월	854	121	267	587

출처: 통일부 (2006) 국감자료(사회문화교류본부)

부, 2006). 새터민의 증가와 더불어 눈에 띄는 점 한 가지는 가족 단위 입국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표 1〉에 제시되어 있듯이 2002년 이후 가족 단위 입국은 총 입국자의 30~35%를 차지하고 있다. 가족 당 세대원 수를 보면 평균 2.22~2.56명으로 가족 동반이긴 하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새터민이 증가함에 따라 새터민에 대한 연구 역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새터민의 적응은 통일 후 북한주민들이 경험하게 될 적응과정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북한연구 혹은 통일학 연구에서 비중 있게 연구되어왔다. 그동안 이루어진 새터민 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이들이 입국하여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문제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며, 적응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을 공통의 과제로 삼고 있다 (김영운, 박종철, 이우영, 1996; 박미석, 이종남, 1999; 박현선, 2003; 윤인진, 김숙희, 2005; 이기춘 외 6인, 2001; 이소래, 1997; 이종석, 1996; 전우택, 윤덕용, 엄진섭, 2003; 채정민, 한성열, 2003; 한만길, 1999 등).

새터민의 적응 문제는 주로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심리적 측면 등에서 연구되었다. 새터민의 적응 상의 어려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성별에 관계없이 취업, 직장문제, 생활비 마련 등과 같은 경제적 차원의 적응이다(강권찬, 2005; 박미석, 이종남, 1999; 장혜경, 김영란, 2000; 조영아, 전우택, 2005). 새터민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이 돈에 좌우되는 경향을 경시하면서도 동시에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을 최대의 과제로 생각하는 양가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전우택, 2000). 이들은 특히 가족과 떨어져 탈북해온 과정 중에 겪은 여러 가지 고생들을 돈을 벌어서 성공하는 것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으며, 남한사회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을 경제적인 자립으로 생각한다. 실증적인 연구에서도 새터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은 그들이 벌고 있는 돈의 액수와 그에 대한 만족도와 직접 연관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전우택, 1999).

또한 한국에 입국한 새터민들은 일상적인 생활환경에서, 언어생활에서, 문화생활에서 일차적인 적응의 어려움을 가진다(김영수, 2004; 박미석, 이종남, 1999; 윤인진, 1999; 이기춘 외 6인, 2001; 장혜경, 김영란, 2000). 새터민들은 남한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서도 남한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의 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고 호소한다(전우택, 1997).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습득과 언어 소통의 문제는 처음 새터민이 정착하는데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문제들이다.

일상생활에서의 적응문제와 문화적 이질성에서 비롯되는 갈등은 정체성이나 박탈감, 소외감,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연결된다. 초기 정착 단계에서는 탈북 후 쫓겨 다니면서 가졌던 공포감이나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여 심각한 불안증후나 외상후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한다(유영권, 2005; 윤인진, 김숙희, 2005). 이러한 불안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에 대한 생각이나 죄책감과 상호작용하면서 더 악화된다. 자신의 탈북사실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피해를 볼지 모른다는 죄책감과 북한에서 고생하는 가족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책임감은 탈북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다(유영권, 2005; 장혜경, 김영란, 2000). 정착 초기에 새터민이 경험하는 외로움 역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문제 중 하나이다. 탈북 이후 친밀한 관계들이 모두 단절되고, 이를 대신할 유대관계를 새롭게 형성하지 못하여 고립감과 소외감이 깊어진다. 병이 났을 때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아는 사람은 많아졌어도 여전히 친한 사람은 없는 것, 남한 사회에서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자신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사람이 없는 것 등은 이들이 주로 호소하는 내용이다(박미석, 이종남, 1999; 유영권, 2005; 전우택, 1997).

2. 가족특성과 새로운 사회에의 적응

새터민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선행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관련요인을 지적한다. 첫 번째로 적응과 관련되는 요인은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으로서, 일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인 경우에, 북한에서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적응에 유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이기영, 2000; 전우택, 2000). 두 번째는 국가의 정착지원, 후원자와의 관계 등 사회적 지원체계와 관련된 요인으로서 탈북자의 수가 많지 않았던 1990년대 초반 입국자들이 이후 지원이 축소된 시기에 입국한 새터민들에 비해 취업 및 한국생활에 대한 만족도 측면에서 더 높은 적응수준을 보이고 있다(윤인진, 1999). 마지막 요인은 가족과 관련된 요인으로서 가족규모, 가족동반여부, 결혼여부, 사회적 지원

여부 등이 새터민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박미석, 이종남, 1999; 윤인진, 김숙희, 2005; 한인영, 이소래, 2002).

대체로 선행연구들은 가족을 동반한 탈북자들이 단독으로 온 탈북자들에 비해 여러 면에서 적응에 유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가족을 통해 받는 정서적 지지와 보호가 사회문화적 적응이나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학자들은 가족을 동반하여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경우에 남편과 아내 사이의 적응의 차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적응의 차이로 인해 가족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김영수, 2000; 장혜경, 김영란, 2000; 조영아, 전우택, 2005).

이렇게 학자들은 새터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가족에 주목하고 있으나 실증적인 자료의 분석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연구는 많지 않다. 선행연구들이 고려한 변수들은 주로 가족동반 탈북 여부나 입국 여부, 가족과의 동거 여부 등이며 가족의 다양한 특성, 특히 관계적 특성을 직접 분석한 적은 거의 없다. 가족이 함께 탈북했거나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를 통해 가족의 과정적 속성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파악했을 뿐이다. 예외적으로 이기영, 성향숙(2001)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결속력, 권력, 폭력 및 갈등, 의사소통과 같은 가족의 관계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대체로 새터민 가족들이 양호하고 긍정적인 가족관계 인식을 하고 있으며 특히 남한에 온 후의 가족관계 인식이 더 긍정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새터민 가족의 관계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관계적 특성이 새터민의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은 한계가 있다.

한편 외국의 연구 중에는 비자발적 이주민이나 난민들의 적응 과정에서 가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들이 다소 이루어졌으며, 이 연구들은 새터민가족의 적응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Sluzki(1979)는 이주가 가족 내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가족 내 갈등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Suarez-Orzco와 Qin(2006) 역시 이주가족의 청소년에 대한 미국 연구들을 고찰하면서, 이주 가족들은 자녀사회화 방식의 변화와 세대간 문화적응의 속도 차이로 인해 세대간 갈등을 공통적으로 경험한다고 하면서 세대간 차이 가설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Pasch와 그의 동료들(Pasch, Deardorff, Tschann, Flores, Penilla, & Pantoja, 2006)의 연구에서는 세대간 문화적응 속도의 차이가 가족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각 세대가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을수록 가족 갈등이 높아진다고 하여, 세대간 차이 가설을 반박하였다.

Weine과 동료들(Weine, Muzurovic, Kulauzovic,

Besic, Lesic, Mujagic, Muzurovic, Spahovic, Feetham, Ware, Knafl, & Pavkovic, 2004)은 보스니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온 난민가족을 질적 방법으로 연구하면서, 이들 가족이 전쟁을 겪으면서 위기를 경험하고 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스니아 난민가족은 미국이란 새로운 사회에서 문화적응을 하면서 가부장제와 같은 기존의 가족가치나 역할수행방식에 도전을 받고 가족이 부분적으로 해체되는 위기도 경험한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기대, 가족 융통성과 유대, 문제의 공유를 통한 신뢰 구축 등을 통하여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였으며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전략으로 활용하였다. Samarasinghe, Fridlund, & Arvidsson(2006)의 연구에서도 난민가족을 받아들이는 사회의 수용태도와 통합정도와 더불어 가족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역할이 가족의 성공적 적응과 안정성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외국 연구들은 가족이 새터민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하지 않으며, 성별과 세대별 가족구조에 따라, 가족의 역할규정 및 관계적 특성에 따라 새터민의 문화적응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족의 관계적 특성을 살펴보는 개념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는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에 주목하였다. 응집성은 가족의 결속력이나 유대를 의미하며, 적응성은 가족의 융통성과 변화 대응 능력을 반영한다. 그동안 가족학이나 가족상담 분야에서는 가족의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에서 응집성과 적응성이 어떻게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Beavers & Hampson, 1993; Epstein et al., 1993; Olson, 1993). 예를 들어, 부모의 재혼을 경험한 가족에서 응집성이 높을수록 가족스트레스가 더 낮았다는 연구(Pill, 1990; Waldren et al., 1990)나 부모가 암으로 사망한 가족에서 응집성이 높을수록 갈등을 더 잘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Kissane et al., 1996) 등은 가족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강화된 유대관계를 맺거나, 유연하게 어려움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응집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응집성과 적응성은 위기를 경험하는 가족의 탄력적 과정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개념으로 평가된다(Kalil, 2003).

그러나 가족학이나 가족상담 분야에서 발전된 이러한 이론적 개념이 새터민 가족에 대한 연구에서는 물론 서구의 비자발적 이주민이나 난민가족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적용된 적은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새터민가족들이 탈북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누적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겪으며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응집성과 적응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가족의 관계적 특성을 설명하는 개념적 도구로 사용하였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95)

변수	응답범주	빈도(%)	변수	응답범주	빈도(%)	
성별	남성	81(41.54)	탈북시기	1995년 이전	1(0.51)	
	여성	107(54.87)		1996	7(3.6)	
	무응답	7(3.59)		1997	12(6.15)	
연령	20세 미만	25(12.82)		1998	54(27.69)	
	20-29세	47(24.10)		1999	35(17.95)	
	30-39세	85(43.59)		2000	19(9.74)	
	40-49세	24(12.31)		2001	19(9.74)	
	50-59세	8(4.10)		2002	15(7.7)	
	60세 이상	6(3.08)		2003	19(9.74)	
가족동반탈북여부	가족동반	74(37.95)		2004	7(3.59)	
	혼자	91(46.67)		무응답	7(3.59)	
	무응답	30(15.38)	입국시기	1995년 이전	1(0.51)	
결혼지위	미혼	65(33.33)		1995~2000	12(6.15)	
	기혼	117(60.00)		2001	19(9.74)	
	무응답	13(6.67)		2002	39(20)	
종교	없음	40(20.51)		2003	55(28.21)	
	기독교	86(44.10)		2004	60(30.77)	
	불교	7(3.59)		2005	1(0.51)	
	천주교	11(5.64)		무응답	8(4.10)	
	기타	30(15.39)		가구 내	미성년가족원 유	28(14.36)
	무응답	21(10.77)		미성년가족원 유무	미성년가족원 무	167(85.64)
현재 하는 일	회사원	24(12.31)	수입의 원천	근로소득	86(44.10)	
	공장근로자	15(7.69)		정착금보조	36(18.46)	
	일용근로자	31(15.9)		기초생활수급	41(21.03)	
	구직	21(10.77)		기타	5(2.57)	
	가사	6(3.08)		무응답	25(12.82)	
	학교	29(14.87)	현재 누구와 함께 사는가	가족과 함께	76(38.97)	
	취업학원	30(15.38)		혼자	109(55.90)	
	검정고시학원	6(3.08)		무응답	10(5.13)	
	기타	7(3.59)				
	무응답	26(13.33)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의 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북한의 식량난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95년 이후에 입국한 18세 이상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새터민 신문의 협조를 얻어 신문이 배달될 때 같이 배달하여 신문사를 통해 회수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2005년 3월 28일부터 배부되기 시작하여 5월 6일까지 300부를 배부하여 총 195부가 회수되었다. 신문을 구독하는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한 편의표집법으로 대상을 수집하였으므로 본 조사의 표본이 전체 새터민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

성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총 응답자 195명 중 남성이 81명, 여성이 107명으로 여성이 다소 많았으며, 연령대는 18세 이상 20대 미만이 25명, 20대가 47명, 30대가 85명, 40대가 24명, 50대 이상이 14명으로,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았다. 종교는 기독교가 86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하는 일은 일용직이 31명, 구직 중인 사람이 21명, 취업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30명 등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42%를 차지하였다.

2. 측정도구

사회문화적 적응은 장혜경, 김영란(2002)의 연구를 참고로 관련된 10문항을 선정하였다. 사회문화적 적응은 사회적 활동제약(4문항), 개인적 차별(3문항), 사회적 소외(3문항)의

〈표 3〉 새터민의 사회문화적 적응 척도

구분	문항	문항수	신뢰도(α)
사회적 활동제약	나는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과 접촉을 꺼릴 때가 있다. 남한에서 사용되는 낯선 언어(한자어나 외래어)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남한의 문화에 적응이 안 된다.	4	.72
개인적 차별	사람들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 하지는 않지만 그들에게서 차별을 느낀다. 직업 및 직장생활을 따라가기에 어려움이 있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	3	.70
사회적 소외	내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느낀다. 남한사회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남한사회의 법·제도에 적응이 안 된다.	3	.65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형으로 측정되었다. 각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에서 적응상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도구들의 신뢰도 평가를 위해 Cronbach's α 분석을 한 결과, 전체 α 는 .78, 사회적 활동제약의 α 는 .72, 개인적 차별의 α 는 .70, 사회적 소외의 α 는 .65로 대체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Olson의 FACES II 척도를 사용하였다. 응집성 척도에는 “그날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 한다”, “우리 식구는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 “우리 식구는 다른 식구의 말을 듣기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 등 8개 문항 등이 포함되며, 적응성 척도에는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모든 식구가 참여한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방법을 함께 의논한다”, “돌아가면서 가사일을 한다” 등 8개 문항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형 척도로 측정되어, 응집성과 적응성 척도의 점수범위는 8~40점이다. 조사도구들의 신뢰도 평가를 위해 Cronbach's α 분석을 한 결과, 응집성의 α 는 .38, 적응성의 α 는 .70이었다. 올슨의 FACES II는 가족의 관계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척도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척도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신뢰도 계수가 낮게 나타나 척도의 내적 일관도가 의심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응집성을 제외하지 않고 분석에 포함시켜 보았으며 대략적인 경향성을 탐색하는 수준에서 의의를 두었다.

이외에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설문도 포함되었다. 응답자의 성별, 연령, 종교, 현재 하는 일, 수입원천, 현재 누구와 함께 사는 지, 가구 내 미성년가족원이 있는지 여부 등의 인구학적 특성 이외에 탈북시기 및 입국시기, 탈북 시 가족동반여부 등을 질문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고, 가족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적응 점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t*-test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관계적 속성을 보여주는 응집성 및 적응성이 사회문화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새터민의 적응에 관련될 수 있는 변수들, 즉 연령, 성별, 종교, 입국 후 기간 및 가족의 구조적 특성을 통제된 후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연령을 년으로, 종교는 유무 이분변수로, 입국 후 기간은 개월로, 미성년가족원 유무는 이분변수로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가족의 구조적 특성과 새터민의 적응

먼저 새터민 적응에 가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족동반 탈북여부, 현재 가족과 함께 사는지 여부, 가구 내 18세 이하의 미성년가족원이 있는지에 따라 사회문화적 적응 점수를 살펴보았다. 가족에 대한 정의는 우선, ‘귀하께서 탈북하실 때 함께 온 가족이 있었습니까?’를 통해 새터민이 주관적으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한 후, 다시 함께 온 가족이 누구였는지 배우자, 아들, 딸,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남성형제, 여성형제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가족동반 탈북 여부에 대해서는 30명의 새터민이 응답을 하지 않아 결측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응답한 165명 중에서는 총 74명의 응답자가 가족이 함께 탈북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함께 온 가족들로는 배우자(16명), 아들(23명), 딸(17명), 아버지(14명), 어머니(23명), 남자형제(17명), 여자형제(8명) 등을 언급하였다(복수응답 가능). 또한 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북한에 가족이 남아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11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0%를 차지하였다. 남아있는 가족들로는 배우자(27명), 아버지(84명), 어머니(23명), 아들(28명), 딸(15명) 등을 언급하였다(복수응답 가능).

한편,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총 76명이었으며, 현재 혼자 살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09명이었다.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28명은 가구 내 미성년가족원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결혼 지위는 미혼이 65명, 기혼이 117명이었는데, 기혼 중에서 현재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가 27명, 배우자와 별거하는 경우가 44명, 그리고 배우자와의 동거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62명으로 결측치가 매우 높았다. 배우자와 같이 살지 않는 경우는 사별이나 이혼, 배우자가 북한에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미혼인 경우에도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와 혼자 사는 경우가 모두 포함되었으며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가 24명이었다.

우선 가족동반 탈북 여부와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회문화적 적응 점수를 영역별로 살펴해보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중 18세 미만의 미성년가족원이 있는지 여부는 사회문

화적 적응 중 사회적 활동제약 영역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내에 미성년가족원이 있는 새터민은 그렇지 않은 새터민에 비해 사회적 활동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남한의 언어나 문화적 측면에서 문제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 차별, 사회적 소외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가족과 함께 탈북 했는지 여부보다 현재 가구 내 미성년가족원이 있는지가 사회문화적 적응에 더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는 흥미롭다. 일반적으로 가족과 함께 탈북한 경우,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나 죄책감이 덜하고 남한에서 살 때에 서로 정서적인 지지가 되어준다는 점에서 가족이 새터민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가족동반 탈북 여부와 현재 가족과의 동거 여부는 새터민의 정서적 어려움과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고, 가구 내 미성년가족원이 있는 지 여부만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새터민 적응에 대한 가족의 긍정적인 영향이 미성년가족원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문화적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미성년가족원들은 나이가 더 많은 부모, 조부모, 손위 형제들이 남한의 언어사용이나 일상문화에 적

〈표 4〉 가족동반 탈북여부에 따른 새터민의 사회문화적 적응 차이

구분	가족 동반			가족 비(非)동반			t
	N	M	SD	N	M	SD	
사회적 활동제약	73	2.79	0.76	89	2.96	0.65	- 1.50
개인적 차별	74	3.10	0.69	91	3.15	0.63	- 0.45
사회적 소외	74	2.93	0.65	91	2.88	0.56	0.54

〈표 5〉 가족동거여부에 따른 새터민의 사회문화적 적응 차이

구분	가족 동거			가족 비(非)동거			t
	N	M	SD	N	M	SD	
사회적 활동제약	75	2.79	0.85	107	2.99	0.56	1.81
개인적 차별	76	3.09	0.71	109	3.11	0.59	0.23
사회적 소외	76	2.88	0.67	109	2.91	0.56	0.33

〈표 6〉 가구 내 미성년가족원 유무에 따른 새터민의 사회문화적 적응 차이

구분	미성년가족원 유			미성년가족원 무			t
	N	M	SD	N	M	SD	
사회적 활동제약	27	2.56	0.82	165	2.94	0.65	2.67**
개인적 차별	28	2.99	0.64	167	3.12	0.63	0.99
사회적 소외	28	2.89	0.57	167	2.90	0.61	0.08

**p<.01

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따라서 미성년가족원이 있는 가족들은 사회적 활동제약을 상대적으로 더 낮게 인식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연령과 가족구성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의 결과이므로 자녀의 효과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가구 내 미성년가족원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자녀가 아예 없는 부모세대, 성년자녀만 있는 부모세대, 또는 미혼이면서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세대의 응답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2. 가족의 관계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적응

가족의 관계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응집성과 적응성에 따라 새터민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살펴보았다. FACES II 척도를 이용하여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살펴 본 결과는, 응집성 척도의 총점 평균은 27.24점(표준편차 4.32점)이며, 적응성 척도의 총점 평균은 27.63점(표준편차 4.15점)이었다. 척도의 중간값이 24점이므로 중간값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점수이다.

가족의 관계적 특성이 새터민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가족의 구조적 특성과 관계적 특성사이에 상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수준은 가족이 함께 탈북 했는지 여부, 현재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지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가구 내 18세 이하의 미성년가족원 유무에 따라서는 응집성과 적응성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미성년가족원이 있는 가족이 그렇지 않은 가족에 비해 응집성 수준이 더 높고, 적응성 수준도 더 높았다. 이 결과는 미성년가족원 유무에 따라 새터민의 사회적 활동제약이 왜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해줄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한다. 미성년가족원이 있는 경우 응집성과 적응력이 모두 높다는 것은 가족관계의 유대와 적응력에 미성년가족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족은 어린 세대를 중심으로 결속하고 어린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 적응력을 발휘하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힘은 가족원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면서 겪는 스트레스나 문제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 이러한 힘은 가족원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면서 겪는 스트레스나 문제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의 응집성, 적응성이 새터민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성별, 연령, 종교, 입국 후 기간 등 새터민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동반탈북 여부, 가족동거 여부, 가구 내 미성년가족원 유무 등 가족의 구조적 특성 중에서는 선행 분석에서 사회문화적 적응에 통계적으로 관련된 가구 내 미성년가족원 유무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8>에 요약되어 제시되어 있다.

사회문화적 적응을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가족의 응집성은 사회적 활동제약과 부적의 관계, 사회적 소외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응집성이 높을수록 언어나 문화 차이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활동제약 문제는 덜 심

<표 8>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에 따른 사회문화적 적응 (n=162)

	사회적 활동제약	개인적 차별	사회적 소외
	회귀계수 (s.e.)	회귀계수 (s.e.)	회귀계수 (s.e.)
응집성	-.04 (.02)*	-.02 (.02)	.03 (.01)*
적응성	.02 (.02)	-.01 (.02)	-.004 (.02)
미성년가족원유무	-.29 (.17)	-.04 (.15)	.05 (.15)
입국 후 기간	-.09 (.04)*	-.03 (.03)	-.09 (.03)**
성별(여성=1)	.02 (.11)	-.08 (.10)	-.09 (.10)
연령	.01 (.01)	.002 (.005)	-.002 (.00)
종교유무	-.11 (.05)**	-.11 (.04)**	-.02 (.03)
상수	3.76 (.52)	4.27 (.48)	2.48 (.46)
F	3.77***	2.21*	2.30*
R ²	.15	.09	.09

*p<.05 **p<.01

<표 7> 가족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응집성 및 적응성 차이

응집성 점수	Yes		No		t
	평균(s.d.)	N	평균 (s.d.)	N	
가족동반탈북여부	27.97 (4.25)	72	26.95 (3.98)	81	1.66
가족동거여부	27.54 (5.11)	76	27.38 (3.16)	96	-1.30
미성년가족원유무	29.07 (3.32)	27	26.91 (4.40)	150	-2.43*
적응성 점수					
가족동반탈북여부	28.17 (4.21)	72	27.71 (3.47)	80	1.41
가족동거여부	28.11 (5.19)	74	27.42 (5.11)	96	-1.07
미성년가족원유무	29.11 (3.68)	27	27.36 (4.26)	149	-2.03*

*p<.05

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남한사회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낮게 평가하는 성향이 더 높았다. 또한 개인적 차별에 대해서는 가족의 응집성이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간의 결속력이 사회적 활동 제약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 사회적 소외감을 크게 느낄수록 결속력이 높아지는 반면, 차별에 대해서는 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또한 응집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사회적 관계보다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가족관계에 더 몰입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한편 적응성의 경우, 응집성과 달리 새터민의 사회문화적 적응에는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미성년가족원 유무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아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성년가족원의 영향은 가족 응집성이나 적응성을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미성년가족원이 있는 가족은 응집성이 더 높으며, 높은 응집성은 사회적 활동 제약 문제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중심으로 다룬 변수는 아니지만 입국 후 기간과 종교유무 또한 새터민의 적응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 후 경과기간은 사회적 활동제약 및 사회적 소외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서, 남한에 온 기간이 길어질수록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활동제약 문제가 완화되고, 남한사회에의 소속감을 획득하고 소외감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가 있는 새터민은 사회적 활동제약과 개인적 차별 문제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적 신앙과 종교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가 새터민의 적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종교가 새터민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관심 있게 다루어볼 주제라고 생각된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가족의 다양한 특성이 새터민의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족을 동반한 탈북이 새터민의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기대하지만, 실제 가족의 영향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지, 나타난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특성을 가족동반 탈북여부, 가족동거여부, 미성년가족원 유무 등과 같은 구조적 측면과 응집성, 적응성과 같은 관계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가족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사회문화적 적응을 살펴본 결과, 사회문화적 적응은 가족의 구조적 특성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활동제약, 차별, 사회적 소외 등의 세 가지 영역 중에서 가족의 구조적 특성과 관련되는 것은 사회적 활동제약에 대한 새터민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것이었다. 사회적 활동제약에 대해서 가족동반 탈북 여부나 현재 가족동거 여부보다는, 가구 내 미성년가족원이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변수임을 발견하였다. 미성년가족원이 있는 가족의 경우, 사회적 활동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남한의 언어나 문화적 측면에서 문제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의 관계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적응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가족의 응집성이 사회적 활동제약과 부적인 관계를 가지며, 사회적 소외와는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원간의 유대와 결속이 사회적 활동제약 문제를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에 비해, 가족의 응집성과 소외 문제가 왜 부적인 관계를 가지는지는 설명하기 쉽지 않다.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인과관계를 반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즉 남한사회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느끼는 사회적 소외감이 클수록, 반대로 가족들 사이의 유대와 결속력이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가족관계에 더욱 집중하며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낮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신뢰하고 의존할 수 있는 관계로서의 가족이 더욱 중요해지고, 위기를 넘어서게 하는 레질리언스의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주목되는 점 중 하나는 미성년가족원의 존재가 새터민가족에게 미치는 영향과 나아가 새터민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다. 미국에 이주해 온 보스니아 난민의 가족에 대한 Weine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Weine et al., 2004)와 마찬가지로 미성년가족원은 새터민가족을 결속시키고 적응성을 높이는 존재로서 작용하였다. 자녀나 아랫세대의 미래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혹은 나아져야 한다는 기대와 믿음은 새로운 사회에 비자발적으로 이주해 온 가족들에게 중요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 또한 미성년가족원들이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고양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가족의 생존과 적응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성년가족원의 빠른 문화 적응 속도는 적응속도가 느린 가족원들에게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의 원천이 된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통해 새로운 언어에 보다 쉽게 익숙해지고 새로운 관습과 문화에 보다 쉽게 적응하게 되며, 이로 인해 사회적 활동 제약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지적해 온 문화적응의 세대차이가 가족 갈등을 야기한다는 세대차 가설이 실증적으로 지지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부록〉 회귀분석에 포함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제약	차별	소외	응집성	적응성	자녀	입국후	성별	연령
활동제약									
차별	.49***								
소외	.28***	.31***							
응집성	-.12	-.10	.10						
적응성	.01	.05	.00	.56***					
자녀	-.19**	-.07	-.01	.18*	.15*				
입국후 기간	-.19**	-.09	-.17*	.01	.01	.22			
성별 (여성)	.02	-.12	-.07	-.002	.02	-.01	-.13		
연령	.07	.01	.02	.02	-.02	-.14	-.03	.16	
종교유무	-.18*	-.23**	.10	-.22**	-.11	.02	.05	.25***	.04

* $p < .05$ ** $p < .01$ *** $p < .001$

새터민의 적응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본 연구는 개인적 차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거의 발견하지 못하였다. 가족의 구조적 특성이나 관계적 특성은 활동제약이나 소외 문제에는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새터민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차별 문제와는 유의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터민 개인이 경험하거나 인식하는 사회적 차별 문제에 있어서 가족이 가진 다양한 특성들이 자원으로 발휘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이나 가족의 수준이 아닌 사회구조적 수준의 대응방식이 필요한 점을 시사한다. 즉 새터민이 느끼는 차별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을 받아들이는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차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새터민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가족이 어떤 방식으로 관련되는지를 알아보고자 구조적 특성과 관계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가족의 구조적 특성보다는 관계적 특성이 사회적 활동제약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으며, 특히 미성년가족원의 존재가 가족의 응집성을 강화시켜 궁극적으로 사회문화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가지는 몇 가지 한계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연구자료의 수집 문제이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들을 편의표집 하였기 때문에 응답자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특히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에서 무응답이 많아서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사생활과 관련된 문항에 무응답율이 높은 것은 설문조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특성이지만, 새터민들은 신분노출의 위험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어서 조사상의 문제가 더욱

커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에서는 면접자가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익명성을 강조하여 응답률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새터민으로 하여금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측정도구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기존의 척도들을 사용하여 사회문화적 적응, 응집성, 적응성 등을 조사하였다. 그런데 사회문화적 적응 척도 중 가족의 관계적 특성을 반영하는 응집성(.39)의 신뢰도 계수가 낮게 분석되었다. 척도의 신뢰도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분석은 결과의 신뢰성과도 연결되는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척도 중 정서적 측면과 관련된 척도의 신뢰도가 특히 낮게 나온 것은 기존의 척도가 새터민의 특수성을 파악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새터민들이 정서적 측면에 대한 조사에 일관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러한 문제는 대규모의 설문조사에 앞서, 질적 연구 등을 통하여 새터민들이 정서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거부감이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새터민에 대한 후속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강권찬 (2005).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분석. 민족연구. 35-63.
 김영수 (2000).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문제. 사회과학연구 9, 102-117.
 김영윤, 박종철, 이우영 (1996).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민족통일연구원.

- 박미석, 이종남 (1999). 탈북가족의 남한가족 적응시 겪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대처방안.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통일논총, 17.
- 박현선 (2003).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 서울: 도서출판 한울.
- 안연진 (2002).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문화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영권 (2005). 탈북자들의 적응 스트레스와 목회상담적 대처방안.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9, 177-220.
- 윤여상 (2002). 탈북자 현황과 적응실태. 자유공론, 12월호.
- 윤인진 (1999).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사회학 33, 511-549.
- 윤인진, 김숙희 (2005). 국내 탈북자의 건강 및 의료. 보건과 사회과학, 17, 149-182.
- 이기영 (2000). 탈북자가족의 남한사회 적응과정. 가족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 이기영, 성향숙 (2001). 탈북가족구성원의 가족관계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 탈북자 가구주 및 그 배우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7(11), 243-271.
- 이기춘, 이기영, 이은영, 이순형, 김대년, 박영숙, 최연실 (2001). 통일에 앞서 보는 북한의 가정생활문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소래 (1997). 사회적 지지가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상담연구, 5(1), 209-247.
- 이종석(1996). 북한주민 의식구조 및 가치관 조사. 통일연수원.
- 장혜경, 김영란 (2000).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 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40-13.
- 전우택 (1999).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적응 개선방안. 제32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99-05). 통일연구원.
- 전우택 (2000).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서울: 오름.
- 전우택 (2002). 탈북자들을 통하여 보는 남북한 사람들의 통합전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6(1)
- 전우택, 윤덕용, 엄진섭 (2003).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생활 실태조사. 통일연구, 7(1), 155-208.
- 조영아, 전우택 (2005). 탈북 여성들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 결혼 경험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1), 17-35.
- 채정민, 한성열 (2003).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가 남한 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101-126.
- 통일부 (2006). 국감자료(사회문화교류본부).
- 한만길 (1999). 북한이탈주민의 남한교육 적응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한인영, 이소래 (2002). 북한이탈주민의 이주형태 및 성별에 따른 건강관련 특성 비교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 10, 121-142.
- Beavers, W.R., & Hampson, R. B. (1993). Measuring family competence: The Beavers systems model. In *Normal processes* (2nd Ed.) edited by F. Walsh. The New York: Guilford Press.
- Epstein, N.B., Bishop, D.S., Ryan, C.E., Miller, I.W., & Keitner, G.I. (1993). The MacMaster model: View of healthy family functioning. In *Normal processes* (2nd Ed.) edited by F. Walsh. The New York: Guilford Press.
- Kalil, A. (2003). Family resilience and good child outcom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Centre for Social Research and Evaluation.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 Kissane, D.W., Bloch, S., Onghena, P., McKenzie, D.P., Snyder, R.D., & Dowe, D.L. (1996). The Melbourne Family Grief Study II: Psychosocial morbidity and grief in bereaved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3(5), 659-666.
- Olson, D.H. (1993). Circumf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Assessing family functioning. In *Normal processes* (2nd Ed.) edited by F. Walsh. The New York: Guilford Press.
- Pasch, L.A., Deardorff, J., Tschann, J.M., Flores, E., Penilla, C., & Pantoja, P. (2006). Acculturation, parent-adolescent conflict, and adolescent adjustment in Mexican American Families. *Family Process*, 45(1), 75-86.
- Pill, C.J. (1990). Stepfamilies: Redefining the family. *Family Relations*, 39(2), 186-194.
- Samaraisnghe, K., Fridlund, B., & Arvidsson, B. (2006). Primary health care nurses' conceptions of involuntarily migrated families' health.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301-307.
- Sluzki, C. (1979). Migration and family conflict. *Family Process*, 18(4), 379-390.
- Suarez-Orozco, C., & Qin, D. B. (2006). Gendered perspectives in psychology: Immigrant origin youth.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0(1), 165-198.
- Waldren, T., Bell, N.J., Peek, C.W., & Sorell, G.T. (1990). Cohesion and adaptability in post-divorce

remarried and first married families: Relationships with family stress and coping style.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14(1), 13-28.

Weine, S., Muzurovic, N., Kulauzovic, Y., Besic, S., Lezic, A., Mujagic, A., Muzurovic, J., Spahovic,

D., Feetham, S., Ware, N., Knaf, K., & Pavkovic, I. (2004). Family consequences of refugee trauma. *Family Process*, 43(2), 147-160.

(2007년 2월 9일 접수, 2007년 4월 17일 채택)